한국사

2019. 2. 23 서울시 추가 시험 7급 한국사 출제 경향 분석

전체적으로 시험에 대한 강평

일반적으로 충실하게 공부한 수험생들에게는 90점 정도의 난도의 시험이다. 7급 시험으로는 각 문항이 역사적으로 심도 있는 부분을 묻지 못하고 평이한 부분이 많아 다소 변별력이 부족한 시험이었다고 본다. 출제 분포에 있어서도 삼국시대 이전의 단원에서는 1문제도 출제가 되지 않았고 현대사는 3문제나 출제가 되어 단원 안배에도 아쉬움이 많이 있다. 또한 인물사와 관련하여 5문제(발해의 왕, 공민왕, 이이, 박지원과 정약용, 박은식)나 출제한 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닐 수 없다고 본다.

첫째, 유형별로 보면

사료형 문제가 2문제, 지문형 10문제, 서술형 8문제로 사료형 문제가 최근 빈출에 비해 적은 문항이 출제되었다. 그러나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번 시험 유형에 연연하지 말고 사료를 접목한 상황 및 배경을 분석하여 체계적으로 학습을 해야만 고득점을 얻을 수 있다고 본다.

둘째, 제도사별로 보면

큰 틀에서 제도사로 분류해 보면 정치사 문제가 12문제, 경제사 2문제, 사회사 2문제, 문화사 4문제로 다소 안배는 이루어졌다. 시험은 고득점을 얻어야 합격이 가능하기에 취약한 단원을 줄이고 전 단원에 걸쳐 골고루 안배하여 학습해야 한다고 본다.

셋째, 특징적 문제를 보면

다소 수험생들에게 난해한 문제는 조선 시대 노비제도 문제, 숙종 시기 정치적 사건, 현대사의 역사적 사건이 다소 어려운 문제로 출제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3문제도 난도에서는 상하 정도 수준으로 기본서에 지엽적이거나 생소한 문제가 출제되지 않아 만점을 얻은 수험생도 이전보다 많았으리라 본다.

결국 고득점을 목표로 하는 수험생은 기본서의 세세한 부분이 2~3문제의 답을 결정하고 합격의 당락을 결정한다고 생각하면 언제나 내공을 기르는 체계적이고 심화된 학습을 통해 시험장에서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하면서 최선을 다하길 바라고 언제나 자신을 믿고 최선을 다하는 수험생에게 합격의 영광이 함께하길 기원한다.

▣ 한국사 출제 문항 분석

< 문항 분석 >

출제영역	수	2019년	유형	난도
한국사의 바른 이해	0	-	-	-
선사 문화와 국가의 형성 (구석기~철기)	0	-	-	-
고대 사회의 발전 (삼국~남북국)	3	• 고구려 대중국투쟁	사료형	하상
		• 발해의 왕들의 업적	서술형	중중
		• 6두품	사료형	중하
중세 사회의 발전 (고려시대)	4	• 대외 관계	지문형	중하
		• 고려 말기의 왜구	서술형	중하
		• 고려의 토지제도	지문형	하상
		• 공민왕	지문형	중하
근세 사회의 발달 (조선 전기)	3	• 이이(이율곡)	지문형	중상
		• 초기 대외관계	서술형	하중
		• 조선시대 노비 제도	서술형	상하
근대 사회의 태동 (조선 후기)	3	• 조선시대 회화	지문형	중중
		• 박지원과 정약용	지문형	중중
		• 숙종 시기 정치적 사건	서술형	상하
근대 사회의 전개 (구한말)	2	• 동학 혁명 운동의 이해	사료형	중상
		• 고문 정치와 철도 부설	지문형	중하
민족의 독립 운동 (일제시대)	2	• 무단 통치의 이해	지문형	중중
		• 박은식	지문형	중하
현대 사회의 발전 (광복 전후~현대)	3	• 통일 정부 수립 과정	지문형	상하
		• 헌법 개정	지문형	중상
		• 4•19혁명	지문형	중하

1. <보기 1>의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서술로 옳은 것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르면?

<보기 1>
심문자: 작년(1894) 3월 고부 등지에서 무슨 사연으로 민중을 크게 모았는가?
전봉준: 그때 고부 군수(조병갑)의 수탈이 심하여 의거하였다.
심문자: 흩어져 돌아간 후에는 무슨 일로 ㉠군대를 봉기 하였느냐?
전봉준: 고부 민란 조사 책임자 이용태가 내려와 의거 참가자 대다수가 일반 농민이었음에도 모두를 동학도로 통칭하고, 그 집을 불태우며 체포하고 살육을 행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났다.
심문자: ㉡전주 화약 이후 ㉢다시 군대를 일으킨 이유가 무엇이냐?
전봉준: ㉣일본이 개화를 구실로 군대를 동원하여 왕궁을 공격하고 임금을 놀라게 했으니, 의병을 일으켜 일본과 싸워 그 책임을 묻고자 함이다.
-「전봉준 공초」(발췌요약)-

<보기 2>
ㄱ. ㉠: 반봉건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남·북접이 연합하여 봉기하였다.
ㄴ. ㉡: 정부와 정치를 개혁할 것을 합의하였다.
ㄷ. ㉢: 공주 우금치에서 우세한 화력으로 무장한 일본군과 정부군에게 패하고 말았다.
ㄹ. ㉣: 명성황후를 무참히 살해하는 을미사변을 일으켰다.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ㄱ, ㄷ, ㄹ ④ ㄱ, ㄴ, ㄷ, ㄹ

•정답 : ②
•출제 영역 : 동학 혁명 운동의 이해
•해설 : 제시된 사료는 전봉준 공초(재판 기록문)으로 ㉠ 동학 농민군의 1차 봉기 ㉡ 전주 화약(폐정개혁) ㉢ 동학 농민군의 2차 봉기 ㉣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과 고종배제와 관련된 내용이다.
ㄴ. 정부는 동학군과 폐정 개혁에 합의(1894. 5. 8)하고 관찰사 협조 하에 전라도 53개 군에 집강소를 설치하고 치안을 유지하고 부패한 행정을 개혁에 나갔다.
ㄷ. 농민군은 2차 봉기 당시 논산에 남접과 북접이 합세하여 북상하였으나 공주 우금치에서 일본군과 관군의 연합 부대에 크게 패하였다.
•바로알기 : ㄱ. 1차 봉기(반봉건적 성격)는 남접 중심(전봉준, 손화중, 김개남)으로 일어났으나 2차 봉기(반외세적 성격)는 남·북접(최시형, 손병희)이 연합하여 일으켰다.
ㄹ. 의병 운동의 발단은 1895년 을미사변과 단발령이 계기가 되어 을미 의병이 일어났다.
•민주국사 P. 882~887, 893~894

2. <보기>의 사건 이후 한반도의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일본은 일진회를 사주하여 「합방청원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1910년 초 일본은 러시아와 영국, 프랑스로부터 한국 병합에 대한 승인을 받아 국제적인 여건을 충족시킨 뒤 한국 병합 조약을 강제로 체결하였다. (1910. 8. 22.)

① 일본은 자국의 '헌법'과 '법률'을 적용하여 한국에 무단 통치를 실시하였다.
② 일본은 한국을 일본의 새로운 영토의 일부로 병합하고, 국가명이 아닌 지역명 '조선'으로 호칭했다.
③ 육해군 대장 중에서 임명된 조선총독은 일본 천황에 직속되어 한반도에 대한 입법·사법·행정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④ 헌병 경찰은 구류, 태형, 3개월 이하의 징역 등에 해당하는 한국인의 범죄에 대해 법 절차나 재판 없이 즉결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정답 : ①
•출제 영역 : 무단 통치의 이해
•해설 : 제시된 지문은 1910년 강제로 체결된 한·일 병합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무단 통치가 시작되었다.
② 조선 총독부는 1910년 발표된 칙령에 따라 '대한제국'이란 국호를 지역명인 '조선'으로 개칭하였다.
③ 조선총독은 일본 국왕의 직속으로 일본 내각의 지시를 받지 않고 한반도에서 행정·입법·사법권은 물론 육해군 통수권까지 장악하였다.
④ 무단 통치 시기에는 범죄즉결례(1910년), 경찰법 처벌 규칙(1912년), 조선 태형령(1912년)이 시행되어 헌병이 정식 법 절차나 재판을 거치지 않고 즉결 처분을 할 수 있었다.
•바로알기 : ① 총독은 일본 국왕에 직속하며 위임의 범위 내에서 육·해군을 통솔하며 조선 방비의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총독이 군사지휘권까지 갖게 된 것인데, 이를 위해 일제는 헌병에게 경찰업무까지 부여하는 헌병경찰 제도를 창안한 것이다. 또한 일본에서도 폐지된 태형령을 조선에 시행하여 재판 없이 구류에 처할 수 있었다.
•민주국사 P. 1008~1011

3. <보기>의 (가)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가) 왜인들이 세견선이 줄어든 것에 불만을 품고 을묘왜변을 일으켰다.
(나) 일본을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20만의 대군을 보내 조선을 침략하였다.

① 정여립 모반사건이 일어나 많은 동인이 처형당했다.
② 4~5천 명의 왜인들이 삼포왜란을 일으켰다.
③ 도원수 강홍립이 거느리는 원군을 명에 파견하였다.
④ 최세진이 훈몽자회를 편찬하였다.

•정답 : ①
•출제 영역 : 조선 중기 정치 상황
•해설 : (가) 을묘왜변은 명종(1555년) 때로 왜구가 전라도 일대에 침입해 지방관을 죽이기는 등 노략질한 사건이다. (나) 임진왜란에 대한 설명으로 선조(1592년) 때 일본이 조선에 침략하였다.
① 정여립 모반 사건은 선조(1589년, 기축옥사)때 서인(정철)은 정여립이 역모를 도모하였다고 하여 동인에 대한 탄압을 하였던 사건이다.
•바로알기 : ② 삼포왜란은 (가) 이전인 중종(1510년) 때 삼포에 거류한 왜인들이 무역 제한에 불만을 갖고 일어난 사건이다.
③ 강홍립이 명의 요청에 따라 원군으로 파병된 것은 (나) 이후인 광해군(1619년) 때이다.
④ 「훈몽자회」는 최세진이 중종(1527년) 때 어린들을 위해 한자에 한글로 음과 뜻을 기록한 서적이다.:
•민주국사 P. 477~484, 574

4. <보기>는 고려의 토지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과 (㉡)에 들어갈 것으로 가장 옳게 짝지은 것은?

<보기>
5품 이상의 고위 관리에게는 (A)를 주어 자손에게 상속하게 하였다. 하급 관료의 자제 중 관직에 오르지 못한 사람에게는 (B)를 주고, 직업 군인에게는 군역의 대가로 (C)를 지급하였다. 직역을 계승할 자손이 없으면 국가에서는 토지를 회수하고 대신 유가족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을 지급하였다. 한편 왕실에는 왕실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D)를 지급하였다. 중앙과 지방의 관청에는 (㉡)을 지급하였고, 사원에는 (E)를 지급하였다.

	㉠	㉡
①	구분전	공해전
②	민전	내장전
③	군인전	공해전
④	한인전	내장전

•정답 : ①
•출제 영역 : 고려의 토지제도
•해설 : A는 공음전, B는 한인전, C는 군인전, D는 내장전, E는 사원전에 해당한다.
㉠ 생계유지가 곤란한 하급 관료와 군인의 유가족이나 퇴역 군인에게는 구분전을 지급하여 생활 대책을 마련해 주었다
㉡ 중앙과 지방의 각 관청에는 공해전을 지급하여 경비를 충당하게 하였다.
•바로알기 : ② 민전은 귀족이나 농민들이 상속·매매·개간을 통하여 형성한 토지였고 내장전은 왕실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토지였다.
③ 군인전은 중앙군에게 국역의 대가로 지급한 토지로 지역과 더불어 세습이 가능하였다.
④ 한인전은 하급 관료의 자제로 관직에 오르지 못한 사람에게 지급한 토지였고 내장전은 왕실의 경비를 위해 지급한 토지였다.
•민주국사 P. 357~359

5. <보기>의 그림들의 제작시기를 시간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기>
ㄱ. 고려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된 「동궐도」
ㄴ. 안견의 「몽유도원도」
ㄷ. 장승업의 「삼인문년도」
ㄹ. 정선의 「금강전도」

① ㄱ-ㄴ-ㄹ-ㄷ ② ㄴ-ㄷ-ㄹ-ㄱ
③ ㄴ-ㄹ-ㄱ-ㄷ ④ ㄹ-ㄴ-ㄱ-ㄷ

•정답 : ③
•출제 영역 : 조선시대 회화
•해설 : ④ 통일신라는 집사부를 제외하고 권력의 분산 차원에서 각 부의 장관은 여러 명인 경우가 많았다.
•바로알기

몽유도원도	금강전도	동궐도	삼인문년도

•민주국사 P. 609, 787, 789

6. 고려 말기의 왜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이들을 막아내는 과정에서 최영, 이성계 등의 무장들이 명성과 세력을 얻었다.
② 이들의 상륙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고려에서 화포를 개발하기도 하였다.
③ 연해지방뿐만 아니라 때로는 내륙 깊숙한 곳까지 침입하기도 하였다.
④ 막부의 지휘와 통제 아래 일사불란하게 한반도를 침입하였다.

•정답 : ④
•출제 영역 : 고려 말기의 왜구
•해설 : ① 고려 말 왜구와 홍건적의 침입을 격퇴하는 과정에서 신흥 무인 세력이 성장하였고 최영은 홍산대첩(부여, 우왕), 이성계는 황산대첩(남원, 우왕) 때 활약하였다.
② 고려는 우왕 때 최무선의 건의로 화통도감을 설치하고 화포를 제작하였다.
③ 왜구는 해안이나 내륙 깊숙한 곳까지 침입하여 식량이나 사람까지도 약탈하였다.
•바로알기 : ④ 기본서에 수록되어 있듯 고려 말 왜구에 침입을 막기 위해 정몽주 등을 외교 교섭을 하였지만 일본 정부(무로마치 막부)가 이를 억제할 힘이 없었기 때문에 실효가 없었다.
•민주국사 P. 326~327

(3) 왜구의 격퇴

① 외교 교섭

정몽주 등을 일본에 보내 교섭하였지만, 일본 정부가 이를 억제할 힘이 없었기 때문에 실효가 없었다.

② 무력 토벌의 전개

잦은 왜구의 침입에 따른 사회의 불안정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였다. 왜구를 격퇴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신흥 무인 세력**이 **성장**하였다.

왜구의 격퇴

최 영	우왕 2년	부여의 홍산
최무선	우왕 6년	진포에서 화포 이용(최초)
이성계	우왕 6년	남원 운봉의 황산
정 지	우왕 9년	남해의 관음포
박 위	창왕 1년	쓰시마 섬 정벌

③ 왜구의 토벌

㉠ **홍산 대첩**(우왕 2년, 1376) : **최영**이 홍산(부여)에서 격퇴하였다.

㉡ **황산 대첩**(우왕 6년, 1380) : 남해안 일대에서 횡행하던 왜구를 **이성계**가 황산(남원 운봉)에서 전멸시켰다. 후일 조선 선조 때 여기에 황산 대첩비를 건립하였다.

7. <보기>는 해방 후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해 노력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들이다. 시간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기>
㈎ 미군정의 지원과 대중적 지지 속에 결성된 좌·우 합작 위원회는 '좌·우 합작 7원칙'을 발표했다.
㈏ 서울의 혜화동에서 여운형이 암살되었다.
㈐ 이승만은 전라북도 정읍에서 단독 정부를 수립하자고 연설했다.
㈑ 미군정은 좌·우 합작 위원회와 한민당을 주축으로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을 구성했다.
㈒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의 결정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제2차 미·소 공동 위원회가 재개되었다.

① ㈎-㈏-㈐-㈑-㈒ ② ㈎-㈑-㈒-㈏-㈐
③ ㈐-㈎-㈑-㈒-㈏ ④ ㈒-㈎-㈐-㈏-㈑

•정답 : ③
•출제 영역 : 통일 정부 수립 과정
•해설 : (다) 이승만의 정읍 발언은 1946년 6월로 남한의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하였다.
(가) 좌·우 합작 7원칙은 토지 개혁과 입법 의원 구성, 친일파 처리 문제 등을 중도적 입장에서 조정하여 1946년 10월에 발표하였다.
(라) 남조선 입법 의원은 1946년 12월에 조직되었으며, 입법 의원 의장에 김규식을 의장으로 구성되었다.
(마) 제2차 미·소 공동위원회는 1947년 5월에 재개되어, 서울과 평양에서 개최되었다.
(나) 여운형은 1947년 7월 서울 혜화동에서 한지근에게 암살당하면서 좌우 합작 운동은 실패하였다.
•민주국사 P. 1172, 1176~1177

8. <보기>의 밑줄 친 ㉠과 같은 신분이 있었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대사의 법호는 무염으로 달마대사의 10대 법손이 된다. (……) 고조부와 증조부는 모두 조정에서는 재상, 나가서는 장수를 지내 집집에 널리 알려졌다. 아버지는 범청으로 ㉠득난(得難)이 되었다.

① 갈문왕이라고 불리는 귀족이 있었다.
② 대귀족으로 진씨, 해씨 등 8개 성씨가 있었다.
③ 귀족들이 정사암에 모여 회의를 열고 수상을 선출했다.
④ 최고 귀족인 왕족과 왕비족은 고추가로 불렸다.

•정답 : ①
•출제 영역 : 6두품
•해설 : 제시된 지문의 '득난(得難)'이라는 용어는 최치원이 지은 「낭혜화상비」에 등장하는 것으로 진골이 될 수 없었던 신라의 6두품을 의미한다.
① 갈문왕은 신라왕이나 왕비 등 일정한 관계를 가진 사람에게 특권적 지위를 준 것으로 왕권을 제약하기도 하였기에 무열왕 때 폐지되었다.
•바로알기 : ② 진씨, 해씨는 백제의 대표적인 왕비족으로 백제는 왕족인 부여씨와 8개 성씨로 구성되어 있었다.
③ 정사암은 백제의 귀족회의와 관련이 있고 수상인 상좌평을 선출하였다.
④ 고구려는 지배층으로 고추가, 상가 등이 있었고 고추가는 왕족에게 수여된 관등이다.
•민주국사 P. 86, 145, 180, 183

9. <보기>에 제시된 헌법 개정의 주요 내용을 시간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기>
ㄱ. 대통령을 직선으로 선출하고 임기는 5년으로 하였다.
ㄴ. 대통령을 대통령선거인단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7년으로 하였다.
ㄷ. 대통령과 부통령을 직선으로 선출하고, 임기는 4년으로 하였다.
ㄹ. 대통령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6년으로 하였다.

① ㄱ-ㄴ-ㄷ-ㄹ ② ㄴ-ㄹ-ㄷ-ㄱ
③ ㄷ-ㄹ-ㄴ-ㄱ ④ ㄹ-ㄷ-ㄴ-ㄱ

•정답 : ③
•출제 영역 : 헌법 개정
•해설 : ㄷ. 1952년 1차 개헌인 발췌개헌에 대한 내용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ㄹ. 1972년 7차 개헌인 유신헌법에 대한 내용으로 대통령의 6년 임기로 중임 제한을 폐지하며, 대통령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간선제로 선출하는 것과 긴급조치권, 국회해산권을 규정한 권위체제이다.
ㄴ. 1980년 8차 개헌의 내용으로 대통령의 임기를 7년 단임의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한 선출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ㄱ. 1987년 9차 개헌의 내용으로 5년 단임제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 내용이다.

▣ 대한민국 헌정의 전개

구분	개헌(연도)	주요내용	비고
이승만 정부 (제1공화국)	제헌헌법(1948년)	대통령 간선제, 단원제 국회	국회에서 대통령 간접선거
	1차 개헌(1952년)	임기 4년 대통령 직선제	발췌개헌
	2차 개헌(1954년)	대통령 직선제, 중임 제한 철폐	사사오입개헌
장면내각 (제2공화국)	3차 개헌(1960.6)	내각책임제, 양원제 국회	4·19 혁명의 영향
	4차 개헌(1960.11)	3·15 부정 선거자 처벌	소급특별법의 제정
박정희 정부 (제3공화국)	5차 개헌(1962년)	임기 6년 대통령직선제, 단원제국회	5·16 군사정변의 영향
	6차 개헌(1969년)	대통령의 3번연임 허용	3선 개헌
박정희 정부, 유신체제 (제4공화국)	7차 개헌(1972년)	대통령 간선제, 권한강화	유신헌법
전두환 정부 (제5공화국)	8차 개헌(1980년)	대통령 간선제, 7년 단임제	12·12 사태의 영향
노태우 정부 (제6공화국)	9차 개헌(1987년)	대통령 직선제, 5년 단임제	6월 민주항쟁의 영향

•민주국사 p. 1195, 1207, 1212, 1214

10. <보기>의 대외관계에 관한 사실을 일어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기>
ㄱ. 강감찬이 거란군을 맞아 귀주에서 크게 승리했다.
ㄴ. 윤관이 별무반을 편성하여 여진을 물리치고 동북9성을 개척했다.
ㄷ. 서희가 소손녕과 담판하여 강동 6주를 영토로 편입시켰다.
ㄹ. 몽골과 강화를 맺고 개경으로 환도했다.

① ㄱ-ㄴ-ㄷ-ㄹ ② ㄴ-ㄷ-ㄹ-ㄱ
③ ㄷ-ㄱ-ㄴ-ㄹ ④ ㄹ-ㄴ-ㄷ-ㄱ

•정답 : ③
•출제 영역 : 고려의 대외관계
•해설 : ㄷ. 거란의 1차 침입(성종, 993년)과 관련이 있으며, 고려의 국경선이 압록강 선까지 이르는 계기가 되었다.
ㄱ. 거란의 3차 침입(현종, 1018년)과 관련이 있으며, 강감찬이 귀주대첩(1019년)에서 승리로 이끌었다.
ㄴ. 여진에 대비하여 윤관이 별무반을 편성한 것은 숙종 때이나 9성을 축조한 것은 예종(1107년) 때이다.
ㄹ. 몽골 침입으로 강화도로 천도하였으나 무신정권의 몰락으로 몽골과 강화 조약으로 원종(1270년) 때 개경으로 환도하였다.
•민주국사 P. 312~313, 315, 319

11. <보기>의 부정선거가 계기가 되어 촉발된 민주화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민주당 후보인 조병옥이 선거 10일을 앞두고 급사하여 단일후보가 되었음에도 자유당의 충성파들은 약 40%의 사전투표를 하는 등 온갖 부정선거를 자행하였다. 이에 부통령 이기붕의 표가 100%에 육박하는 결과가 나오자 이를 79%로 하향조정하기도 하였다.

① 야당정치인과 종교인 등이 민주회복국민회의를 결성하여 저항하였다.
② 경무대를 향해 돌진하던 시위대에 경찰이 총격을 가하였다.
③ 부산과 마산을 중심으로 부마항쟁으로 불리는 대규모 저항운동이 일어났다.
④ 서울의 봄이라고 불리는 대규모 학생시위가 벌어졌다.

•정답 : ②
•출제 영역 : 4•19혁명
• 해설 : 제시문은 1960년 3·15 부정선거에 대한 내용으로 4·19 혁명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다.
② 4·19혁명 당시 학생과 시민들이 경무대로 몰려들자 경찰이 당시 시위대를 향해 발포하면서 시위가 격화되었다.
•바로알기 : ① 민주회복국민회의는 1974년 긴급조치가 발호되고 민청학련 사건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반유신 민주화운동을 결집하기 위해 함석헌 등이 발족시켰다.
③ 부·마 민주 항쟁은 YH노동자 신민당사 농성 사건에 대한 무리한 진압과 김영삼 신민당 총재에 대한 국회에서 의원직 박탈 등 유신체제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민주화 운동이다.
④ 서울의 봄은 1980년 전두환 등 신군부에 저항하며 일어난 민주화 운동이다.
•민주국사 P. 1197~1198, 1209, 1211

12. 17세기 말 숙종 때 벌어진 정치 집권세력의 변화 양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제2차 예송논쟁으로 집권한 서인은 숙종 6년(1680)'경신환국'으로 남인에게 정권을 빼앗기게 되었다.
② '경신환국'의 결과 서인은 송시열을 영수로 하는 노론과 윤증을 중심으로 하는 소론으로 분당되었다.
③ 숙종 15년(1689) 후궁 희빈 장씨가 낳은 왕자가 세자로 책봉되는 과정에서 서인이 몰락하고 남인이 다시 집권하였는데 이를 '갑술환국'이라 칭한다.
④ 숙종 20년(1694) 남인 집안 출신의 왕비 민씨가 폐비되면서 서인(노론과 소론)이 다시 집권하였다.

•정답 : ②
•출제 영역 : 숙종 시기 정치적 사건
•해설 : ② 경신환국(1680년)은 남인이 역모를 도모하였다 하여 윤휴와 허적을 제거하고 서인이 집권한 사건으로 집권한 서인은 남인에 대한 처벌과 정책 수립 과정에서 대의명분을 중시하는 송시열 중심의 노론과 실리를 중시하는 윤증 중심의 소론으로 분열되었다.
•바로알기 : ① 2차 예송논쟁(갑인예송, 1674)은 집권한 붕당은 남인이나 경신환국으로 서인에게 정권을 빼앗겼다.
③ 후궁 소의 장씨 소생을 원자·세자로 책봉하는 과정에서 서인이 몰락하고 남인이 다시 집권한 사건은 기사환국(숙종, 1689년)이다.
④ 폐비 민씨(인현왕후)는 서인 집안 출신으로 서인 김춘택이 복위를 주장하다가 남인의 탄압을 받는 과정에서 숙종은 남인의 지나친 정권욕에 염증을 느끼고 서인을 등용한 사건은 갑술환국(숙종, 1694년)에 대한 내용이다.
•민주국사 P. 503, 645~647

13. 조선시대 노비 제도 및 노비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조선시대 노비의 자식들은 대대로 노비 신분이 세습되었으나, 일정 기간 국역(國役)에 종사하면 양인으로 신분이 상승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② 조선시대 사노비는 주인이 마음대로 매매·양도·상속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주인이 사노비를 함부로 죽이거나 사형(私刑)을 가하는 게 법으로 허용되었다.
③ 사노비는 주인의 집에서 거주하는 솔거노비와 주인과 떨어져 거주하는 외거노비가 있었는데, 그 수는 솔거노비가 절대 다수였다.
④ 외거하는 사노비는 주인으로부터 사경지(私耕地)를 받아 그 수확을 자신이 차지하여 재산을 축적하기도 하였다.

•정답 : ④
•출제 영역 : 조선시대 노비 제도
•해설 : ④ 외거노비는 독립된 생활을 하면서 주인에게 노동력을 제공하는 대신 신공(身貢)을 바쳤는데 작개지(作价地)로 불리는 주인의 땅을 경작하여 수확을 모두 바치고, 주인으로부터 일부 땅을 사경지(私耕地)로 받아 그 수확을 자신이 차지하였다.
•바로알기 : ① 조선시대에 노비는 원칙적으로 국역 부담이 없었으나 예외적으로 잡역이나 군역을 부담하는 경우 면천(免賤)하는 경우가 있었다.
② 조선 세종 때 주인이 자신의 노비에게 사형(私刑)을 가할 수 없도록 하였다.
③ 조선 전기까지는 일천즉천(一賤則賤)에 의해 공노비에 비해 사노비 수가 많았으며, 사노비 중에서는 외거노비가 솔거노비에 비해 많았다.
•민주국사 p. 454(세종의 업적), 518

사노비 : 주인집에서 함께 사는 솔거 노비, 주인과 떨어져 독립된 가옥에서 사는 외거 노비가 있다.

솔거 노비	주인집에 거주하면서 잡역을 담당하였다.
외거 노비	독립된 생활을 하면서 주인에게 노동력을 제공하는 대신 신공(身貢)을 바쳤다[작개지(作价地)로 불리는 주인의 땅을 경작하여 수확을 모두 바치고, 주인으로부터 일부 땅을 사경지(私耕地)로 받아 그 수확을 자신이 차지하였다]. 솔거 노비보다 사회·경제적 처지가 나은 편이었으나 주인 뜻에 따라 솔거 노비로 전환될 수 있었다.

14. <보기>의 인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명나라 사신 왕경민이 "항상 기자가 동쪽으로 온 사적에 대해 알 수 없는 것이 한스럽다. 조선에 기록된 것이 있으면 보고 싶다."라고 하니, (㉠)이(가) 전에 본인이 저술한 「기자실기」를 주었다.

① 백운동서원에 소수서원이라는 편액을 하사받도록 하였다.

② 성학집요와 격몽요결 등을 집필하였다.

③ 유성룡, 김성일, 장현광 등 주로 영남학자들에게 그의 학설이 계승되었다.

④ 일평생 처사로 지내며 독창적인 유기철학을 수립하였다.

•정답 : ②
•출제 영역 : 이이(이율곡)의 이해
•해설 : 『기자실기』는 이이가 선조 때 기자의 행적을 정리해 서적으로 기자를 공자와 같은 성인으로 추앙하였으며, 기자가 우리 민족을 교화하여 중국과 같은 문화 민족으로 향상시킨 공로를 높이 숭상하는 등 왕도 정치의 뿌리(시작)를 찾으려는 역사의식이 담겨 있다.
② 이이는 『성학집요』에서 현명한 신하가 군주에게 성학을 가르쳐 그 기질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격몽요결』을 통해 소학 교육을 강조하였다.
•바로알기 : ① 이황은 백운동 서원을 명종에게 건의하여 소수 서원으로 사액을 받았다.
③ 이이의 주기설은 조헌 · 김장생 등에 의해 계승되었고, 이황의 주리설이 유성룡, 김성일 등 주로 영남학자들에게 계승되어 영남학파를 형성하였다.
④ 서경덕은 기일원론을 토대로 독자적인 유기철학을 수립하였다.
•민주국사 p. 577, 585~587

15. <보기>의 ㉠과 ㉡에 들어갈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조선후기에 과학 및 기술 분야에서 많은 저술 활동이 이루어졌다. (㉠)은(는) 「과농소초」를 집필하여 농업 기술 발달에 기여하였고, (㉡)은(는) 「마과회통」을 저술하여 의학 분야 발달에 기여하였다.

① ㉠은(는) 천주교도를 탄압한 신유사옥 때 유배형에 처해졌다.

② ㉡은(는) 여전제 실시를 주장하였다.

③ ㉠은(는) 서얼 출신으로 상공업 육성과 청과의 통상무역 등을 주장하였다.

④ ㉡은(는) 「반계수록」을 집필해 토지재분배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정답 : ②
•출제 영역 : 박지원과 정약용
•해설 : ㉠ 박지원, ㉡ 정약용에 대한 내용이다. 「과농소초」는 정조 때 박지원의 농서이고 『마과회통』은 정조 때 정약용이 편한한 마진(홍역)에 관한 의학서이다.
② 정약용은 그의 저서 「전론」에서 토지의 공동 경작 및 수확물을 노동량에 따라 공동 분배하는 여전제 실시를 주장하였다.
•바로알기 : ① 신유사옥(신유박해, 순조) 때 정약전은 흑산도, 정약용은 강진에 유배되었다.
③ 서얼 출신으로 소비를 통한 상공업 육성과 북벌에서 벗어나 청과의 통상 무역을 주장한 실학자는 박제가이다.
④ 『반계수록』은 유형원의 저서로 신분에 따라 토지를 차등 분배하자는 균전론을 주장하였다.
•민주국사 P. 759~766

16. <보기>에서 나타내고 있는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 독립운동가이자 민족주의 역사학자
• 태백광노(太白狂奴) 또는 무치생(無恥生)이라는 별호를 쓰기도 함
• 상해에서 안중근전을 저술함

① '혼'과 '백' 중 '혼'을 잃지 않으면 나라를 되찾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② 윤세복이 만주에 세운 동창학교에 참여하였다.

③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통령을 역임하였다.

④ 한인애국단을 조직하였다.

•정답 : ④
•출제 영역 : 박은식
•해설 : 제시된 지문은 박은식으로 계몽사학자이자 민족주의 역사학자로 태백광노(太白狂奴, 나라를 잃어 미쳐버린 노예)나 무치생(無恥生, 부끄러움도 모르는 인간)이라는 별호를 사용하였고 「안중근전」, 「연개소문전」을 편찬하였다.
① 박은식은 『한국통사』에서 국혼(國魂) 등을 강조하였다.
② 동창학교는 1911년 만주에 설립한 민족 학교로 박은식은 교사로 활동하였다.
③ 1925년 국민대표 회의에서 이승만이 탄핵되면서 박은식을 임시정부의 제2대 대통령으로 선출하였다.
•바로알기 : ④ 한인 애국단은 김구가 임시정부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1931년 상하이에 조직한 단체이다.
•민주국사 p. 1046, 1129

17. <보기>의 (가), (나)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기>
(가) 메가타 다네타로(目賀田 種太郎), 스티븐스(Stevens)
(나) 경인철도, 경부철도, 경의철도

① (가)는 대한제국 정부에 고용된 관료였으나, 일본의 이익을 위해 활동했다.

② (나)의 3개의 철도 모두 최종적으로 일본이 건설했다.

③ (가)는 '을사조약' 체결 이후 각각 대한제국의 재정과 외교를 감독했다.

④ (나)의 철도 건설에 토지· 노동력을 강제 징발당한 한국인의 분노와 저항이 일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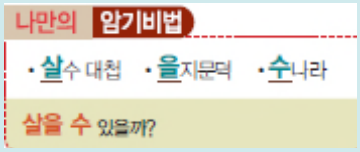
•정답 : ③
•출제 영역 : 고문 정치와 철도 부설
•해설 : (가) 일본인 메가타(재정)와 미국인 스티븐스(외교)는 제1차 한·일 협약에 따라 고문으로 파견된 사람들이다.
(나) 경인선은 미국, 경부선은 일본, 경의선은 프랑스가 이권을 침탈하였다.
① 메가타는 화폐 정리 사업(1905년)을 주도하였고 스티븐스는 일본을 대변하다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전명운, 장인환에 의해 사살(1908년)되었다.
② 경인선은 1899~1900년, 경부선은 1905년, 경의선은 1906년에 일본이 모두 완성하였다.
④ 일본은 철도 부설 과정에서 토지를 약탈하고, 농민들을 강제로 부역 동원하였기에 의병은 철도를 파괴하기도 하였다.
•바로알기 : ③ 메가타와 스티븐스는 1904년 8월 제1차 한·일 협약에 따라 파견된 고문이다.
•민주국사 p. 960, 975, 1004

18. <보기>의 시와 관련된 전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귀신같은 전술은 천문을 꿰뚫었고 묘한 전략은 지리를 통달했구나.
전쟁에서 이겨 공이 이미 높아졌으니, 만족함을 알고 그만함이 어떠하겠는가.

① 동천왕 때 일어난 전쟁이다.
② 살수에서 고구려 군이 크게 승리하였다.
③ 당 태종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침략을 감행하였다.
④ 왜군 3만 명이 원군으로 참전하였으나 백강 전투에서 크게 패배하였다.

•정답 : ②
•출제 영역 : 고구려 대중국투쟁
•해설 : 을지문덕이 수나라 장수 우중문에게 보낸 5언시이다.
② 수 문제가 백만 명이 넘는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공격해왔으나 요하에서 침략을 막아냈고 이어서 수 양제가 30만 명의 별동대를 이끌고 공격해 왔으나 살수 대첩(청천강, 612년)에서 크게 물리쳤다.
•바로알기 : ① 동천왕은 위나라 침입을 받았고 수나라의 침입은 고구려 영양왕 때 일어났다.
③ 당 태종은 안시성 전투와 관련이 있고 수 양제가 군대를 이끌고 침략을 하였다.
④ 백강 전투(663년)는 왜가 백제 부흥 운동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민주국사 p. 137~139



19. 발해의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발해는 고구려계 유민과 말갈계 유민이 세운 다민족 국가였다.
② 제2대 무왕은 산둥지방의 등주(登州)에 수군을 보내 당을 공격하였다.
③ 제3대 문왕은 확대된 영토를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수도를 '중경현덕부'에서 '상경용천부'로, 그리고 '동경용원부'로 옮겼다.
④ 제5대 성왕 대에는 국력이 더욱 강대해져서 '해동성국(海東盛國)'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정답 : ④
•출제 영역 : 발해의 역사
•해설 : ① 발해는 대조영이 고구려 유민과 다수의 말갈인을 이끌고 지금의 지린성 돈화시 동모산에 건국한 나라이다.
② 무왕(대무예)는 장문휴로 하여금 수군을 이끌고 산둥 반도 덩조우(등주)를 공격하였다.
③ 문왕(대흠무)는 중경현덕부에서 상경용천부로 천도하였으며, 다시 수도를 동경용원부로 천도하였다.
•바로알기 : ④ 성왕(대화여) 때는 동경용원부에서 상경용천부로 천도하였고 선왕(대인수) 때는 말갈족을 복속시키고 요동에 진출하면서 최대 영토를 차지하여 '해동성국(海東盛國)'으로 불리기 시작하였다.
•민주국사 p. 152~155

20. <보기>의 밑줄 친 '왕'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적이 개경 근처에 이르자 왕이 난을 피해 개경을 떠났다.
왕이 복주에 이르러 정세운을 총병관으로 삼아 홍건적을 토벌하게 하였다.

① 자제위를 설치하였다.
②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였다.
③ 정동행성이문소를 폐지하였다.
④ 박위를 보내 왜구의 소굴인 쓰시마를 공격하였다.

•정답 : ④
•출제 영역 : 공민왕
•해설 : 제시된 지문은 홍건적 침입으로 안동(복주)으로 피신하였던 공민왕 때이다.
① 자제위(子弟衛)는 공민왕 때 설치된 관서로 왕권을 강화하고 신변 호위 및 인재를 양성할 목적으로 궁중에 설치하였으나 홍륜 등 자제위에 의해 왕도 피살되었다.
② 전민변정도감은 공민왕이 설치한 기구로 권문세족이 불법적으로 차지한 토지와 노비를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주고 양인으로 해방시켜 왕권을 강화하고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하였다.
③ 공민왕은 반원 정책의 일환으로 고려의 내정을 간섭하던 정동행성이문소를 폐지하였다.
•바로알기 : ④ 박위는 창왕 때 쓰시마정벌을 단행하였다.
•민주국사 p. 326~327, 330~332